

환경기술 전시회 6월 10-13일 COEX 개최

국내 최대규모의 환경기술전이 개최된다.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 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후원으로 6월 10-13일 COEX에서 2500여종의 환경 신기술 및 제품을 전시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제30회를 맞는 국제환경기술전에는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총 24개국, 약 250사(국내157사에 국외 93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환경기술전은 2004년부터 5년 연속 국가 유망전시회로 선정돼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참가기업 및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시회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 17개국 80여명의 해외 바이어 및 공무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바이어 초청을 포함한 전시회의 해외수출액이 매년 약 450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 실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및 국가 환경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환경기술전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완전 정화시켜 방류수 수준으로 배출시키며 정화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연소해 스팀을 발생시켜 완전 건조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이아)와 저공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3세대 기술방식인 LPLi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LPG 승용차(대한LPG협회)가 전시될 계획이다.

또 인디아 정부상을 수상한 야자섬유를 이용한 베개, 침대 등 천연 친환경 제품 등 국내외 친환경기술·제품도 함께 소개된다.

특히, 최근 고유가에 따른 최대 관심사인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사업단이 발족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확보 방안이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환경산업 수출 전략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고 2012년까지 세계 환경시장(965조원)의 7%(67조원)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6/09>